

# 골초라도 50세 전에 금연하면 암 덜 걸리고 수명 2.4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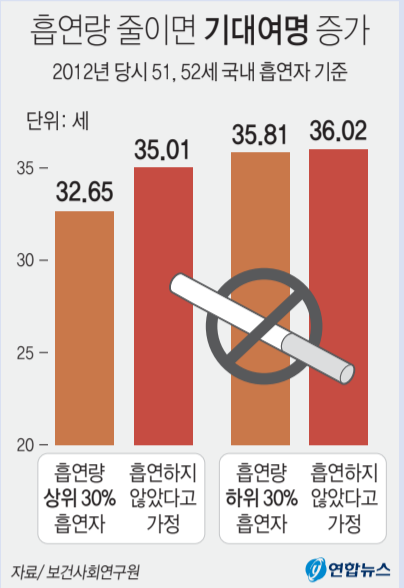


50세 이전 상위 30% 흡연자 기준 흡연량 많은 사람일수록 효과적

담배를 많이 피우는 50세 이전 '골초'가 '비흡연자'로 살았다면 수명은 2.4년 연장되고 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등에 걸릴 확률도 훨씬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 예측 및 질병 부담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량의 감소는 '기대여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기대여명'과 '질환이 없는 기대여명'까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이용해 2012년 당시 51, 52세였던 국내 흡연자를 골라냈다. 흡연량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흡연자의 기대여명, 장애가 없는 기대여명, 질환이 없는 기대여명은 각각 32.65세, 25.14세, 12.17세였다. 평균적으로 64세가 지는 건강하고, 77세 이후에는 장애가 생기고 84세가 넘으면 사망한다는 얘기다.



반면, 이들이 흡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기대여명은 35.01세로 흡연했을 때보다 2.36년 증가했다. 장애가 없는 기대여명은 26.54세로 1.40년, 질환이 없는 기대여명은 13.80세로 1.6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병률도 크게 떨어졌다. 상위 30%의 흡연량을 0으로 줄인 결과, 암뿐만 아니라 당뇨, 심장질환, 폐 질환도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흡연량 하위 30%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여

명은 35.81세에서 36.02세로 0.21년 증가했고, 장애가 없는 기대여명은 27.21세에서 27.34세로 0.13년 증가, 질환이 없는 기대여명은 12.09세에서 12.22세로 0.13년 증가했다.

이런 연구 결과로 유추해보면, 금연정책은 흡연량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될 때 더 효과적이다.

보고서는 "50세 이전의 흡연량이 50세 이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0세 이전의 흡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담뱃값 인상이나 금연광고 캠페인 등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4년 9월 2020년에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2016년 12월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 등 금연정책을 강화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담배 하루 한갑을 30년 넘게 핀 54세 이상 골초 흡연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전국 5개 휴게소, 저염메뉴 선택 식약처, '찾아가는 덜 단짠' 체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17일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찾아가는 덜 단짠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덜(Low) 단짠 홍보단, 한국도로공사(충북본부)와 함께 나트륨·당류를 줄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덜(Low) 단짠 홍보단은 덜 달게, 덜 짜게 먹는 식습관 실천을 높이기 위해 체험 행사, 영양상담, 홍보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단이다.

이번 행사로 5개 휴게소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기존 메뉴의 염도를 낮추거나 새로운 저염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창휴게소(통영방향)와 화서휴게소(상주방향)의 '해물순두부찌개', 속리산휴게소(청주방향)의 '우거지국밥'은 염도

를 낮추어 제공하고, 충주휴게소(양평방향)와 천등산휴게소(평택방향)에서는 '충주사과카레덮밥'과 '천등산고구마밥 정식'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관할 24개소 휴게소에서는 현장 체험과 나트륨·당류 저감 홍보를 진행한다. 휴게소 매장에 염도계를 비치하여 이용객 누구나 판매하는 음식의 염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피 주문시에 '시럽은 한 번만' 등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캠페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가는 식문화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 행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 세븐일레븐 불닭소스 활용 이색 떡 디저트 출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불닭소스를 활용한 이색 떡 디저트 '이게정말불떡'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편의점 디저트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지난해 디저트 매출은 전년 대비 232.4% 증가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67.0%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게정말불떡'은 조청, 꿀을 넣은 달콤한 시럽에 매운 불닭소스를 넣어 만든 상품이다. 중독성 강한 '맵단짠(맵고 달고 짠)' 맛이 특징이며 국내산 찹쌀떡을 넣어 쫄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장영정 세븐일레븐 디저트 담당 MD는 "떡 디저트와 함께 매운 맛 상품들이 최근 대세 음식으로 떠오름에 따라 두가지를 결합한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트렌드에 맞춘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특히 최근에는 전통간식이었던 떡이 젊은층의 입맛에 맞게 변화하면서 인기 디저트로 주목 받고 있다. 세븐일레븐 이카테고리별로 지난해 디저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케이크는 29.3% 증가한 데 비해 떡은 370.9% 증가했다.

##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풋살히어로즈' 개막

동아오츠카가 지난 11일 대전 남선공원 풋살구장에서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 2019'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동아오츠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등 6개 지역의 296개 중학교 풋살팀과 본선 시범경기를 위해 초등학교 24개교가 참가한다.

대회는 대전 예선전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 인천, 서울 순으로 지역구 예선전이 오는 6월 2일까지 펼쳐질 예정이다. 예선에 통과한 24개 팀만이 오는 6월 8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최종 본선에 오를 수 있다. 우승팀에게는 장학금 200만원이 시상되며,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전달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광동제약 임직원 위한 '가산콘서트' 개최

광동제약은 임직원을 위한 문화행사 '제18회 가산콘서트'를 지난 10일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공연의 초대가수로 지난해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12회 가산콘서트 무대를 꾸렸던 '하모나이즈'를 재초청했다. 이들은 세계 합창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월드 콰이어 게임에서 2년 연속 금메달 2관왕을 수상한 실력 있는 쇼콰이어 그룹으로 본사에서 열린 공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안무, 랩 등이 복합된 멋진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광동제약이 지난 10일 경기도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임직원을 위해 개최한 제18회 가산콘서트에서 초청 공연팀인 '하모나이즈'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허구성 입증할 것"

美 ITC 증거수집 통해 적법성 증명 양사 균주 정밀 비교분석 제출할 것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통해 나보타의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나보타 균주의 적법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소송은 한국 소송과 달리 증거수집(Discovery) 절차를 통해 양 측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에게 요구하여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증거수집 절차 기간 동안에는 양



측이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대웅제약도 포자 형성 여부 감정과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균주를 제공받도록 요청했다.

ITC 재판부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에 균주 제출을 요구하고, 메디톡스 역시 대웅제약이 지정한 전문가에게

균주를 제출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양사의 균주를 정밀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를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양사는 서로에게 균주를 제출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조율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겠다고 양사 균주를 비교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 전체 염기서열을 직접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소송 뿐 아니라 국내 소송에서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여부를 비교해 메디톡스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제약, 1분기 매출 386억... 전년비 41.4% 증가

셀트리온제약이 1분기 연결 기준 3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실적이다.

셀트리온제약은 14일 간장용제 고덱스 및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의 국내 매출 증가에 따라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3억원 증가한 386억원, 영업이익은 4억원 증가한 18억원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제약의 1분기 케미컬의약품 매출은 간장용제 고덱스 115억원, 종합비타민제 타미플 10억원 등 총 216억원이다. 시장점

유율 1위 제품이자 주력 품목인 고덱스의 경우, 지난해 매출 366억원의 31.4%에 해당하는 매출을 1분기만에 달성하는 등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제약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트룩시마(혈액암 치료제), 허주마(유방암, 위암 치료제)의 매출액은 총 1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했다.

특히 램시마는 2012년 7월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약

33%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달성했으며, 2017년 7월 출시한 트룩시마와 같은 해 9월에 출시한 허주마의 점유율도 전년 대비 각각 13%, 29% 성장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